

'제5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준)가 지난달 28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주철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순욱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봉사대상 수상자는 봉사부문에 김태규 신부(79세, 남)가 대통령 표창을, 간호부문에 고(故) 조윤미 님(향년 59세, 여)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봉사부문 수상자인 김태규 신부는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5·8장학회를 설립해 1978년부터 2016년까지 3천여 명에게 4억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후 한센인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 활동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학업을 후원하고 훌륭한 봉사자로 양성하는 등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정신을 계승하며 숭고한 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간호부문 수상자인 고(故) 조윤미 님

한센인 자녀 후원 힘써 온 김태규 신부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 건강권 지켜온 고(故) 조윤미 간호사는 국무총리 표창



제5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은 의약분업 실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간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책에 참여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간호사였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꾸준한 실천으로 제도 밖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 '청소년 희망더하기 공모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작전여고(인천) 이소연, 노동고(고흥) 정가람, 전라남도지사상에 진성여고(여수) 심민경, 경기경영고(부천) 김서연 학생이 선정됐다. 또한 고흥군수상에는 고흥/박도일 기자

진성여고(여수) 김민서, 고흥군의장상에는 노동고(고흥) 김민주,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장상에는 작전여고(인천) 정세미 학생이 수상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신 봉사자와 간호부문 수상자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청소년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봉사대상이 많은 분에게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43여 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이어나가고자 2021년 제정됐다. 평소 나눔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봉사자를 공모로 추천받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가 심사·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11월 28일 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를 개최했다.

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근, 이하 광양경제청)은 11월 28일 광양경제청 2층 상황실에서 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 광양2)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예산 1,170억4천만 원 대비 1억7천1백만 원을 감액한 1,168억3천3백만 원(일괄회계 556억5천5백만 원, 특별회계 611억7천8백만 원)으로, 일괄회계는 홍보관 리뉴얼 구축비 1억9천만 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PC박스 운반비 1천2백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하였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강정일 의장은 청 본연의 직무인 투자유치 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강조하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다.

구중근 광양경제청장은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고, "남은 한 달여 주요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에 매진하여 2025년도의 미있는 성과를 달성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김장 담그기·나눔 행사 성료

600여 명 참여...따뜻한 김장 나눔으로 지역 이웃에게 온정 전달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달 27일 김장철을 맞이해 도매시장 일원에서 '2025 김장 담그기·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23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협의회가 주관하고 법인 3사(순천원예농협, 순천남도청과, 남일청과)와 봉사단체(섬김과 나눔), 순천시가 함께 뜻을 모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읍·면·동 민간단체의 참여자 등 6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도매시장 중도매인협의회와 법인 3사가 지원한 9천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또한, 행사의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을 위해 각설이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멋과 흥을 더했다. 신나는 장단에 참여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호응하며, 김장 담그기와 더불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정중 중도매인협의회 회장은 "김장 나눔과 같은 도매시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매시장 상인과 법인, 시민, 봉사단체와 함께 정성껏 담긴 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겨울 식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산물도매시장



지난달 27일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2025 김장 담그기·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 단순한 거대 공간을 넘어 나눔과 상생,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은 매년 김

장철 나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민 안전·행복 위한 더 책임있는 의정활동 다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사진)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행정·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 자치·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법률개정 선제적 제안과 정부 정책 반영, 지방자치형 대형 재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적 선도 사례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민의



시원회와 시의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며 "의회가 지역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든든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무안 미래농장 윤언호 대표, 따뜻한 쌀 나눔

취약계층 위해 쌀 100포 선물...6년째 기부 이어와



6년 동안 따뜻한 쌀 나눔을 이어온 윤언호 미래농장 대표가 올해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10kg 쌀 100포를 기부했다.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미간, 박정수)는 미래농장을 운영하며 축산·농업을 겸하고 있는 윤언호 대표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쌀(10kg)

100포를 기부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윤언호 대표는 직접 한우를 사육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6년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쌀만 총 600포에 달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쌀은 청계면 46개 마을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에 고르게 배부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식생활 지원과 어려운 가정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언호 대표는 "매년 감사한 마음으로 쌀을 전하고 있다. 크지 않은 나눔이지만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수 공동위원장은 "6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윤언호 대표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따뜻한 정성이 담긴 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주 서구아너스 '겨울나기 따스택배' 전달

취약계층 922가구에 방한물품 전달...후원금 23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나기 따스택배'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사진). 서구아너스는 지난달 28일 저소득·독

거노인·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웃 922가구를 직접 찾아 전기·온수매트, 패딩, 겨울이불 등으로 구성된 방한 물품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번 사업을 위해 후원금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아너스 회원, 동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 대상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 여건과 주거 안전을 살피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방한물품을 받은 한 어르신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해줘 큰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가 전하는 따뜻한 온기가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고액 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를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107명의 회원이 총 36억여 원을 기부했다. 서구아너스는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로 시작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쉽지 않' 지원, 12월이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한 012파트너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석우 기자